

레이어 의원은 「노동당 정권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폐지의 타임테이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의 도전에 몰두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더우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사업의 민영화에 반대했다.

노동당대회의 투표에서 NUM제안의 결의안이 근소한 차이지만 부결된 이유로서 ① NUM은 TUC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노조로 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노동당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노조가 노동당에 가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한 점, ② 원자력추진의 EETPU는 TUC에서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TUC대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노동당대회에는 출석한 점, ③ 지금까지 15년간의 기한부 원자력전폐에 찬성해 온 건설노조가 태도를 변경한 점 등의 세가지 점을 들 수 있다.

1979년, 1983년, 1987년 과거 세번의 총선거에서 보수당에게 겨우 대처정권을 10년 이상이나 허용해 온 것은 노동당의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이 패인으로 분석되어 정책의 재검토를 해 온 성과가 브라이튼의 노동당대회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89년 10월에 들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동당이 5~9% 보수당을 상회하는 지지를 얻고 있듯이, 차기선거에

서의 정권탈환이 시계에 들어온 것이 동당정책의 현실로선화에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의 전폐결의안은 비현실적이라 하여 부결되었지만, 원자력에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원자력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존·웨이컴 에너지장관(보수당)은 노동당의 원자력폐지방침에 대해 무책임하고 지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과 아울러, 「원자력의 폐지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석탄화력에의 의존도를 높여 NUM의 전투주의자 수중에 에너지정책을 위임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하원의 각 당파별 의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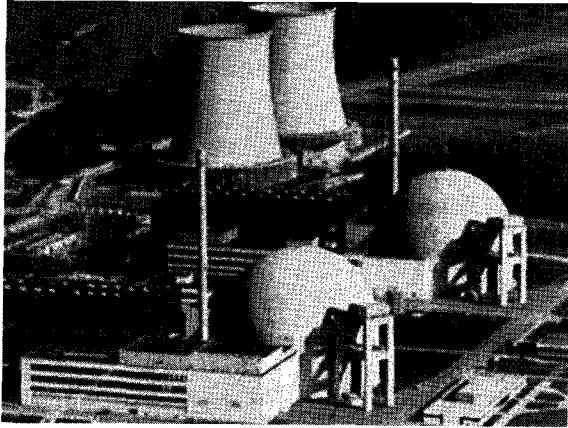
	1987年 6月 의 總選舉	1983年 6月 의 總選舉
保守黨	376	397
勞動黨	229	209
自由黨	17	17
社會民主黨	5	6
北 아일랜드· 유니오니스트제파	9	11
스코틀랜드민족당	3	2
웨일즈민족당	3	2
기 타	8	6

原電廢止에 懷疑的

西獨의 알렌스바하輿論調查研究所는 바가스도르프재처리계획이 중지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작년 여름에 17세 이상의 2,05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떤 정당에 속하고 있는가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크리스트교 민주·사회동맹(CDU·CSU)에 속하고 있는 사람중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계속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63%였으며, 사



희민주당(SPD)은 45%, 자유민주당(FDP)은 72%, 녹색당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민주당 당원으로서 기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44%가 되어, 지지와 폐지가 확실하게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끌 수 있는대로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크리스트교민주·사회동맹 당원이 3%, 사회민주당 2%, 자유민주당 2%, 녹색당 3%로 나타나 어느 당원이든 원자력발전소의 조기정지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의 이용이 앞으로 수십년내에 전부 중지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크리스트교민주·사회동맹 당원이 47%, 사회민주당 50%, 자유민주당 41%, 녹색당 46%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原子力發電所 建設을 計劃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전력수요가 연평균 15% 정도로 대폭 신장하고 있다. 특히, 전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자바섬에서는 2015년에 약 2,700만KW 정도의 공급력을 필요로하게 되지만, 기존의 석탄·석유·수력·지열 등의 에너지로는 이 수요를 전부 충당할 수 없어서 600만~900만KW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작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공급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준비 개시의 정부결정이 내려졌다.

인도네시아原子力廳의 아힘사장관은 立地·환경조사는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면밀한 진행을 위해서는 13~14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로 운전개시는 2003~2004년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의 자바섬의 전력수요량 가운데 기존에너지로는 부족한 공급력을 700만KW로 예측했을 경우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는 7기, 60만KW급으로는 약 12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出力은 미국과 일본 및 그밖의 선진국 원자로공급업체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이며, 금년내에 시작될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힘사장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原子力廳에서는 700만KW분량 전부를 원자력에 의존할 계획이지만, 최종결정은 국가에너지조사위원회에서 내려지게 되는데, 전량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방법 외에 현재 국내 발전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天然가스를 일부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최초의 상업로 입지후보지점은 자바海에 인접한 중부자바의 무리아반도부근으로서, 이 지역은 조용한 內海側으로 암반도 견고하므로 입지후보지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힘사장관은 초호기는 수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30% 정도는 국산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호기 부터는 점점 국산화 비율을 높혀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